

SUMMARY

INTRO)

- 럭비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조기탈락 한 것은 영국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수과정에서 발행한 채권은 최악의 채권 중 하나가 되었다.'

BODY)

<주가 손실>

표현된 사실	잠재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럭비월드컵에서 개최국인 잉글랜드가 호주에게 패했다. -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펍의 매출 혹은 스포츠 용품 판매와 같이 작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고용 및 배당금과 같이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대회 전체의 예상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약 22억 파운드다. - 그 한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추산치로 영국의 30억 파운드(약 5조 3000억원)의 주가가 증발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락 전에는 거리에서 잉글랜드 럭비 티셔츠를 입은 팬들을 종종 볼 수 있었고 펍 입구에 위치한 보드에도 럭비월드컵 관전 일정을 적어 놓았었다. 하지만 예선 탈락 후 그러한 광경은 보기 힘들어졌다. 보드는 럭비월드컵 일정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축구 일정이 차지했다. → '팬심'이 상당히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결론 : 스포츠 '팬심'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채권 손실>

표현된 사실	잠재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은 영국의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많은 금액을 주고 인수했다. - 이 가문은 인수과정에서 채권과 대출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 - 결과적으로 채권의 만기수익률이 낮아 채권의 가격이 폭삭 내려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의 담보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올드트래포드 스타디움과 캐링턴 연습구장이 잡혀있었다. → 안그래도 미국 자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것에 대해 영국 축구팬들의 심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의 성지로 담보로 잡는다는 것에 대해 영국팬들의 심기가 불편했다. → 영국 축구팬들은 해외 자본으로 어지럽혀진 프리미어리그를 언짢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를 통해 인수자금을 갚기를 원치 않는다. → 이러한 영국팬들의 심리라는 요인이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스포츠 '팬심'이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OUTRO)

-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나 팬심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WORD

럭비월드컵

윌리엄 웹 엘리스컵

럭비 월드컵(Rugby World Cup)은, 국제 럭비 평의회(International Rugby Board)의 주관 하에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럭비 대회이다. 우승 팀에게는 럭비 스쿨에서 처음 럭비를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기리기 위한 윌리엄 웹 엘리스 컵(William Webb Ellis Cup)이 주어진다.

World Rugby Rankings

Updated: 11 May, 2015

FULL RANKINGS			BIGGEST CLIMBERS		
POSITION	TEAMS	POINTS	POSITION	TEAMS	POINTS
1	NEW ZEALAND	93.70			
2	SOUTH AFRICA	88.23			
3	IRELAND	85.76			
4	ENGLAND	85.40			
5	WALES	84.07			
6	AUSTRALIA	82.95			
7	FRANCE	79.74			
8	ARGENTINA	78.23			
9	SAMOA	75.39			
10	SCOTLAND	74.79			
11	JAPAN	74.70			
12	FIJI	74.57			
13	TONGA	74.12			
14	GEORGIA	72.16			
15	ITALY	71.85			
16	USA	67.61			
17	CANADA	66.83			

BIGGEST FALLERS		
POSITION	TEAMS	POINTS
72	THA	38.35
40	BRA	49.26
59	SIN	42.92
37	POL	49.84
41	SEN	49.22

실물경제¹

자연경제(natural economy). 돈 흐름과 운용을 의미하는 화폐(금융)경제와 대립되는 개념 실제 물건이나 물품이 거래되는 등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부동산이나 기업의 생산활동, 개인의 노동과 소비, 유통업체의 판매행위 등 실제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최근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으로 증폭된 미국의 경제위기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실물경제를 급속히 침체시키고 있어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과 일본, 중국의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수출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¹즉, 실물 – 돈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 금융 – 돈만 움직이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00 만원의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살까 주식투자를 할까 하는 고민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중에서 고민하는 것과 같다.

정량적, 정성적

본문 -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에 있어서 정량적인 부분도 중요하나 팬심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구 분	정성적 (Qualitative) 조사	정량적 (Quantitative) 조사
목 적	기초적인 원인이나 동기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얻음	자료를 계량화시키고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결과를 일반화시킴
표 본	대표성 있는 소규모의 사례	대표성 있는 대규모의 사례
자료수집	비구조화	구조화
자료분석	비통계적	통계적
주요방법	개별 심층면접 등	개별 면접조사 등
결 과	초기 이해의 전개	행동의 최종단계 권고

'정성적(定性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정량적(定量的) 평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태도다.

Ex) 성과급제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만 평가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과를 평가할 때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케팅 성과를 평가할 때 매출 증가와 같은 정성적 요소가 아닌 인지도나 호감도 같은 정성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SENTENCE

P143

“영국의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사례를 보자. 2005년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은 이 팀을 8억 1000만 파운드(약 1조 4000억 원)에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과정에서 해지펀드로부터 채권을 통해 인수자금 2억 2000만 파운드를 16.25% 이자율로 조달했고, 은행에서도 5억 900만 파운드를 높은 이자율로 조달했다. 따라서 구단의 수익성이 낮았다. 2010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4억 9000만 파운드의 채권 발행을 계획했다. 채권은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 채권으로 나누어져 각각 2억 5000만 파운드, 4억 2500만 달러로 발행될 예정이었으며 표면금리는 파운드화의 경우 8.75%, 달러화의 경우 8.375%의 쿠폰을 반기별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만기는 2017년 2월 1일로 설정됐다. 채권 발행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만기수익률(할인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표면수익률보다 할인율이 낮을 경우에는 발행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할인율이 높을 경우에는 발행액보다 낮게 거래된다.

채권발행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참담했다. 파운드화 경우에는 만기수익률이 10.591%로 결정돼 채권이 표면액 대비 93%로 할인돼 버렸다. 마찬가지로 달러화 채권의 경우도 표면액 대비 94.5%로 할인돼 버렸다. 이에 대해 소시에테제네랄의 한 애널리스트는 “2009년 아래 채권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악의 채권 중 하나”라고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혹평했다.

채권

: 국가, 지자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국공채, 사채 등

채권가격

: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채권의 만기까지 발생할 원금과 이자를 채권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채권가격이 된다.

표면금리(표면이율)

: 발행자가 빌린 자금(액면금액)에 대해서 만기까지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는 이자율임.

표면수익률

: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로 재 투자개념이 없이 단리로 총수령하는 연이자율이다.

할인율(채권 수익률 = 채권금리)

: 만기일에 채권에 명시된 금액을 갚아야 하는데, 빌려줄 당시엔 받을 금액만큼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일정한 이자를 제하고서(할인) 빌려주는 것

만기수익률

: 만기수익률은 정해진 가격으로 채권을 현재 매입할 경우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약〉

미국 글레이저 가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과정에서 채권 발행

2억 2000만 파운드 16.25% 이자율로 조달.

4억 9000만 파운드의 채권발행 계획

발행 실행

영국 파운드화 채권 = 2억 5000만 파운드 (표면금리 8.75%)

미국 달러 채권 = 4억 2500만 달러로 발행될 예정 (표면금리 8.375%)

²표면수익률(≠표면금리) > 할인율 = 발행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됨.

표면수익률(≠표면금리) < 할인율 = 발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됨.

파운드화

표면수익률(≠표면금리) 8.75% < 할인율 93%

달러

표면수익률(≠표면금리) 8.375% < 할인율 94.5%

P142

“오후 8시 경기가 시작될 무렵 술집은 사람으로 가득 메워졌고 열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전반 8분 페널티 획득을 통한 3점 득점을 시작으로 호주는 파죽지세로 잉글랜드를 몰아붙여 17대3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에 잉글랜드가 반격에 나서 20대 13까지 따라붙었으나 막바지에 대량 실점하며 33대 13으로 패배했다. 이로써 럭비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역대 럭비월드컵 개최국 중 역사상 가장 빨리 예선에서 탈락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² 채권의 표면금리는 채권이 발행할 당시의 회사의 신용도와 반비례한다. 채권의 할인율은 채권을 최종적으로 팔 당시의 회사의 신용도와 반비례한다.

즉, 최종 채권 할인율이 표면금리보다 크다는 것.

표면금리가 1 --> 할인율 2로 변했고,

회사의 신용도 2 ---> 1로 변했다는 것.

REFERENCE

1. 럭비월드컵 참고자료 - 알렉스 에드만즈 교수 논문 일부

World Cup fever: Why an England loss will wipe billions off the stock market

12th June 2014/by Alex Edmans

The “**behavioural finance**¹⁾” team points out that traders aren’t computers, but humans. They’re prone to mistakes and psychological biases. Thus, share prices are affected not only by **fundamentals**²⁾, but also by emotions. Internet shares were wildly expensive in the late 1990s, not because these companies’ prospects were stellar, but because investors had become irrationally exuberant.

행태재무학¹⁾은 거래하는 주체가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은 자신의 심리에 의해 행동한다. 그래서 주가는 **펀더멘털즈**²⁾뿐만 아니라 사람들 감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주가는 1990년대 후반에 엄청 비쌌는데, 그 이유가 회사들의 전망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건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흥분**을 하며 투자해서 그렇다..

(...)

That’s why I chose to look at sports. Sports have huge effects on people’s emotions, these are far stronger than the effects of weather, and they can’t simply be neutralised by the office environment. When England lost to Argentina in the 1998 World Cup, heart attacks increased over the next few days. Suicides rise in Canada when the Montreal ice hockey team loses in the Stanley Cup, and murders go up when the local American Football team loses in the playoffs. International sports, like the World Cup, affect the whole nation in the same way, and lead to a large effect on national mood that is correlated across a country.

그래서 나는 **스포츠**를 살피려고 한다. **스포츠**는 사람들 감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사람들 감정은 날씨보다 강하고 그것들은 그야말로 일하는 환경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잉글랜드가 1988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한테 졌을 때 심장마비를 걸린 사람들이 며칠 후에 늘었다. 몬트리아 아이스 하키 팀이 스탠리 컵에서 졌을 때 캐나다의 자살률이 올랐다. 또한 지역 미국인 풋볼 팀이 재시합전에서 졌을 때 그 지역 살인률이 올랐다. 월드컵같이 국제적인 **스포츠**도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그 나라에 상관이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

1) 행태재무학

행태재무학은 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학문으로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는 달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즉, 행태재무학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각종 심리적인 편향으로 인해 때때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행태재무학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12만원이 되었을 때의 기쁨보다는 1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8만원이 되었을 때의 불만족이 훨씬 더 크며, 자신이 매수하기 전보다 매수한 후에 해당 주식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고 한다.

2) 펀더멘털즈

① 국민경제나 기업의 기본적 실력을 나타내는 제요인

② 통화의 대외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적 조건; 주로 경제수지와 물가상승률의 두 가지를 가리키는 일도 있다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관련 참고자료 - 애널리스트의 채권관련 발언 기사 원문

제목 : 맨유 두번의 굴욕? 발행채권 인기 시들

이데일리 | 양미영 | 입력 2010.02.03. 02:14 | 수정 2010.02.03. 02:14

- 액면가대비 가격 하락..당분간 추가 자금조달 자체할 듯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명문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부채 상환용으로 발행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고전하며 두번의 굴욕을 맛보고 있다. 맨유는 과거 인수대금과 유명선수 영입을 위해 끌어 쓴 부채가 발목을 잡으면서 차환용 채권을 발행했지만 맨유 채권을 대하는 시장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2 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맨유가 프리미어 리그 신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의 마술이 영국 금융가인 시티 내에서는 통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맨유는 최근 채권발행을 통해 5 억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지만 발행된 채권은 올해 가장 최악의 성과를 낼 전망이다. 이미 시가평가에서 장부손실이 발생하면서 향후 발행시장 복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맨유의 2 억 5000 만달러 규모의 파운드화 채권가격은 액면가의 93%까지 떨어졌고 4 억 2500 만달러의 달러화 채권 역시 액면가치의 94.5%에 불과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채권 발행 당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평가했고 신용등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FT는 최근 발행된 채권들 가운데 맨유만큼 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없으며 노르웨이 화학기업인 컬링 등의 채권들은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고 전했다. 스키 먼 소시에떼제네럴 신용 스트레이티지스트는 "양호한 신용 시장에서 맨유는 지난 해 이후 가장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채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맨유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맨유가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시장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신규 채권 발행 이전에 부채를 더 축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5년 7 억 9000 만 파운드에 맨유를 인수한 글레이저 가문은 당시 지급이자 차환을 위해 현물출자(payment in kind) 채권을 발행했고,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일단 채권발행에 나서기 전에 챔피언스리그 성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맨유 측이 직접적인 언급을 부인한 가운데 맨유 관계자는 "발행시장 복귀는 당장의 의제가 아니며 채권 발행과 현물출자 대출 상환 계획에 분노한 팬들을 달랠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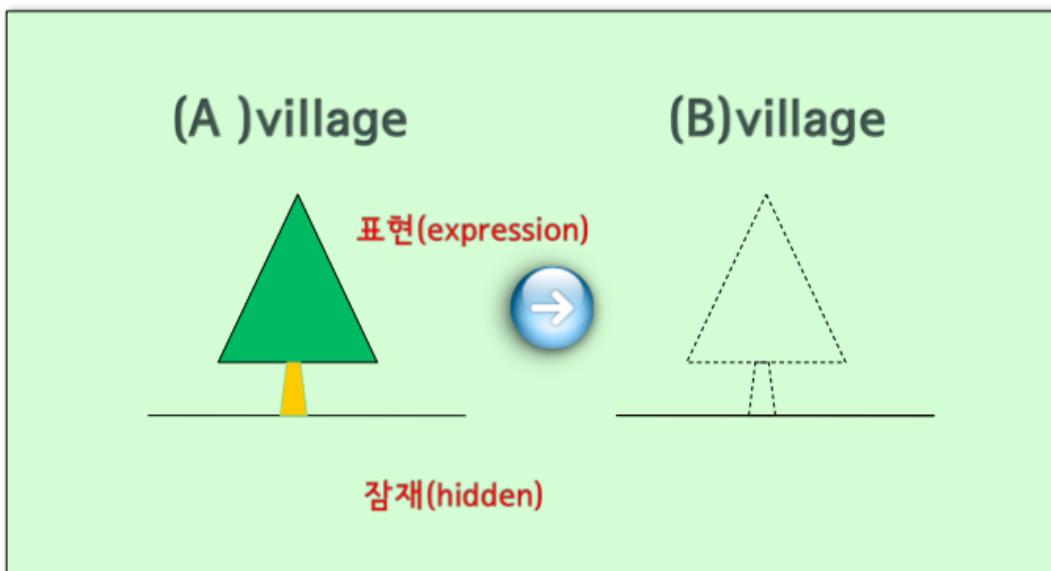
ISSUE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is environment?

환경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no making) 탐색(Search), 전략대안 도출목적

Ground = market



*그림에 대해서는 발표날 설명합니다.

마케팅을 할 때 하는 '환경분석'은 눈에 보이는 '표현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되는 '잠재적인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보이는 사실들이 어떠한 영향과 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케팅원론 담당 신광수 교수님 曰

"환경분석은 표현된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된 사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가?

〈실습〉

주제 : 수많은 스터디룸 시장 사이에서 '제이알스터디룸'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것인가?

〈표현된 사실〉

가격 : 1인, 1시간 2000 원

특이점 : 최소 4인실부터 운영, 음식물 반입 가능, 무료음료(차 종류) 제공, 오피스텔 장소

위치 : 종각역, 광화문 역 근처 르메이에르종로타운 A 동 11 층(A 동 엘리베이터이용)